

전주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한 번에'

시, 책기둥도서관 · 국립전주박물관 · 팔복예술공장 둘러보는 '라키비움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결합한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다.

전주시는 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지역 대표 특화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차례로 방문하는 '라키비움 전주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라키비움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은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과 국립전주박물관, 팔복예술공장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행 참가자들은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다양한 큐레이션 전시를 둘러보며 인생 사진 찍기 체험을 진행한 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동해 '이집트·삼, 죽음, 부활의 이야기' 특별전을 관람했다.

마지막 여행 코스로 팔복예술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판화' 특별전을 관람하며 전북 판화의 30년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전시 총감독인 유대수 판화작가와 함께 목판화도 체험했다.

이외 앞서 시는 전주지역 곳곳의 특화도서관을 활용해 올 상반기에 △정장년 대상 '박성민 작가와 함께 하는 펜 그림 수업' △신중년 대상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하기' 등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 하반기에는 이번 '라키비움(도서관·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여



전주시는 28일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지역 대표 특화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차례로 방문하는 '라키비움 전주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이 이어 8월 2일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진작가와 함께 떠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라키비움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가족들과 여행하는 기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각 분야의 전문 해설사들과 함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아이의 여름방학 시작을 여행도 하고, 전기도 즐기고, 목판화 작품도 만드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 여행 특

별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도서관이 함께하는 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장년, 신중년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일상 속에 여행이, 여행 속에 도서관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는 지난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채워줄 2022년 첫 번째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개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초청 강연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채워줄 2022년 첫 번째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열린시민강좌에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가 강사로 초청돼 '돈과 투자 그리고 부자되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염 강사는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 경제학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 △주식이란 무엇인가 △세계경제의 흐름 △우리는 왜 투자가 실패하는가 △뛰어난 투자자 되기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진심을 담아 전달했다.

그는 또 강연장 입장 전 시민들에게 받은 질문지 중 5개를 선정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질문이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을 사인과 함께 증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좌 시작 전 문화공연 시간에는 퓨전국악실내악단 소

리애(Sorrea)가 준비한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열린시민강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지명하신 염승환 강사님의 돈과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들먹 얻어갈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매일 개최되는 전주시 열린시민강좌에 꾸준히 참여하여 개인적 소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2년 만에 다시 재개한 열린시민강좌는 더 많은 시민 여러분과 쾌적한 환경에서 소통하기 위해 장소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으로 옮기고, 시간도 수요일 저녁시간으로 옮겨 진행하게 됐다"면서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열린시민강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강좌는 오는 8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채사장 작가의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고 성장하기-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취약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시행

전주시,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 · 농촌지역 마당견 사육지 취약지역 선정 실시

전주시는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실천하기 위해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유기동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으로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동물등록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와 등록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 마당견 사육지 취약지역을 집합장소로 선정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이 종료된 오는 9월 이후부터는 미등록자에 대한 집종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반려견과 생활하는 시민들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과 아파트 단지 내 방송 협조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신

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장형 등록접 이식 시술에는 전주시 41개 동물병원 수의사회가 동참하며, 시는 지역과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포함한 전주시의 반려동물 정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휴가철이 지나면 유기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야외활동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최근 고온현상 및 집중 휴가철로 야외활동 증가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벌 쏘임 주의를 당부했다.

말벌은 7월부터 초가을인 9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므로 벌 쏘임에 대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수, 화장품 등 벌을 자극하는 스프레이 자제, 흰색 계열의 옷 착용·긴소매의 상 착용으로 노출을 최소화하고 탄산음료 등 단 음료를 자제해야 한다.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벌집에 접촉하면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이탈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신속히 제거하고 쏘인 부위 즉시 소독, 물로 씻은 후 냉찜질을 실시하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만약 구토·설사·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여름철에 벌이 집중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야외활동에 주의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벌집이 있을 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전주시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격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농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단,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결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또 농지 취득자격 심

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농기센터, 친환경 양파 · 감자 생산기반 구축 강화

전주시가 친환경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양파와 감자의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친환경농산물인 양파와 감자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양파와 감자의 경우 학교급식과 직매장 등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농산물이지만 양파의 지역 생산량은 35톤 정도에 불과해 학교급식 등에서 소비되는 200여 톤과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감자의 경우도 건조한

고랭지에서 자라는 작물로 토지의 물 빠짐이 원활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생산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친환경 원예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에는 생산된 양파를 저장할 수 있는 66㎡ 규모의 저온저장고 조성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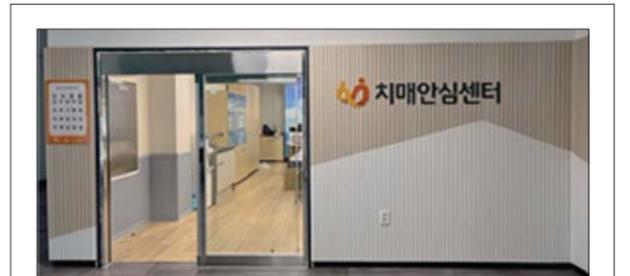
그리고 올해에도 친환경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약 6000㎡ 이상 양파 생산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66㎡)를 지원하고, 감자와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2640㎡) 구

축을 지원함으로써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농가의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및 일손이 부족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일손 돕기도 지속 추진중이며, 향후에도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김윤상기자



"치매환자 인지재활교구 대여합니다"

전주시 덕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8월 2일부터 추진

전주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덕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인지재활교구 대여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지재활교구란 치매환자 등의 재활을 위한 학습을 구체화·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등 복합적인 인지자극에 도움이 된다.

대여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주간보호센터 등 전주지역 노인복지시설로, 대여를 희망하는 자는 방문자 신분증 또는 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지참해 덕진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여사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방문 시간당 1시간 신청 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수량은 개인당 최대 5세트·기관당 1종 최대 10세트, 대여 기간은 1회 7일까지 월 최대 2회 이용할 수 있다.

교구는 패턴큐브놀이 등 23종 465세트가 구비돼 있으며, 교구마다 사용 방법도 함께 제공된다. 또

담당 작업치료사와 간호사가 전달된 견본을 활용해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방문자가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덕진보건소는 반납된 교구를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를 통해 이중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진을 기할 계획이다.

덕진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점차 운영일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 보건소장은 "인지재활교구 대여사업은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 "인지 훈련을 통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지재활교구 대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292, 8583~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